

[01~03] 다음은 안내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십니까. 국내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전통 건축 부재 보존 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안내를 맡은 A입니다. 전통 건축 부재 보존 센터라는 이름부터가 생소하시죠? 이곳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저와 함께 들어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여 년 전 숭례문 화재로 국보 1호가 거대한 화마에 휩싸인 장면을 기억하시는지요? 숭례문 2층 상부의 90%가 불타 버린 이 가슴 아픈 사고를 교훈 삼아 전통 건축 수리 기술 진흥 재단이 설립되었고, 우리 재단에서 전통 건축 부재보존 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부재의 의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 의미가 궁금하셨을 텐데요, 부재는 구조물의 뼈대를 이루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여러 가지 재료를 의미합니다. 우리 전통 건축에 사용된 기와에서부터 목재류, 못과 같은 철물 등이 이에 해당하며 숭례문 화재 당시 수습한 부재만 해도 총 3,800여 점 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부재들을 지키고 연구하여 우리 전통 건축 문화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이는 일을 하는 곳이 전통 건축 부재 보존 센터입니다.

여러분, 방문하시기 전 이곳이 어떻게 생긴 건물일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대답을 들은 후) 네. 전통 한옥 모양의 건축물로 생각하였군요. (웃으며) 많이들 그렇게 상상하고 오십니다. 그런데 첫 느낌은 어떠셨나요? (대답을 들은 후) 생각보다 규모가 큰 현대식 건물이라 놀라셨다고요? 아직 놀라시긴 이릅니다. 현대식 건물의 모습만큼이나 최첨단 기술들로 가득한 곳이 바로 이곳 전통 건축 부재 보존 센터입니다. 사실 이 건물은 이미 설계 당시부터 이 지역의 주변 지형과 바람길까지 분석하여 지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이곳은 지상 1층 강의실입니다.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인 이곳의 지상 1층에는 전통건축 부재, 수리 도구, 전통 건축물 모형, 수리 기법 등에 대한 전시 및 각종 기획 전시가 상시 진행되는 전시실, 전통 건축 기술을 체험하는 목공실, 전통 건축 부재에 대해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연구 및 보존처리를 하는 보존 과학실, 그리고 세미나실 및 강의실이 있습니다. 안내가 끝난 후 자유 시간에 천천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1층과 2층에 걸쳐서는 이 센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수장고가 있습니다. 다양한 전통 부재를 크기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수장고와 향온 향습 수장고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바람길을 고려하여 이 건물을 지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를 통해 부재를 보관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환기라는 점을 눈치채셨지요?

그렇다면 이제 전통 건축 부재 보존 센터의 핵심인 수장고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곳이 수장고입니다. 생각하셨던 것보다 훨씬 크지요? 길이 50m, 폭이 20m쯤 되는 이 거대한 수장고는 복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통 건축 부재가 이곳에 오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먼저 현장에서 보존할 부재를 선정하고 운반 시 파손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운반합니다. 부재에 따라 무진동 트럭을 사용하여 보존 센터로 안전하게 이동하며, 보존 센터 도착 후 수장고로 이동, 건식 세척과 훈증 처리를 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전자 태그를 부착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 세 단계, 건식 세척과 훈증, 태그 부착 단계를 매우 흥미로워하시는데요, 세척이라 하면 일반

적으로 물로 무엇인가를 깨끗하게 씻는 것을 상상하시죠? 그런데 건식 세척이라니 의아하실 겁니다. 붓과 흡입기로 오래된 부재의 먼지를 털어내는 단계입니다. 특히 송진과 같은 것이 묻어 있는 경우 나무를 썩게 만드는 세균의 먹이가 될 수 있기에 이 단계의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단계인 훈증은 벌레나 균으로부터 부재가 상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소독 과정입니다. 부재를 두꺼운 비닐로 밀봉하고 그 안에 소독 가스를 일정 농도로 넣어 72시간 동안 유지하는데 이때 시험용 공시충과 공시균으로 바구미와 검은곰팡이를 넣습니다. 아, 공시충은 시험용 곤충, 공시균은 시험용 세균을 의미합니다. 여러 위치의 공시충과 공시균이 활성을 띠지 않아야 훈증이 제대로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훈증을 마친 부재들은 최종적으로 수종이 무엇인지, 연대가 언제인지, 단청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도구를 사용해 제작한 부재인지 등에 대한 꼼꼼한 조사 단계를 거친 후 전자 태그 ‘RFID’를 달고 수장고에 배치됩니다. 전자 태그에는 부재 종류, 현황, 위치 등의 정보가 들어가며 전자 태그 덕분에 우리는 원하는 부재를 검색하여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시스템 같죠? 여러분이 도서관에서 책을 찾을 때 사용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해가며 손상된 전통 건축 부재들을 왜 보관하고 연구하는지 의문이 드실 수 있지만 이렇게 잘 보존된 부재는 전통 건축물 보수에 재사용하기도 하고, 전통 건축 연구자들은 전통 건축 부재를 연구하며 일반적으로는 볼 수 없는 부분들까지 더욱 깊이 연구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전통 건축 부재 연구를 통해 당대의 생활상과 축조 기술, 건축 기법 등을 연구하여 선조의 얼과 역사가 깃들여 있는 전통 건축의 가치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유산에는 우리 민족의 찬란했던 어제와 밝은 내일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문화재의 전통적 가치를 보존하고 새로운 역사를 향한 힘찬 도약을 약속하겠습니다. 하지만 전통 건축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벅차니 여러분들도 앞으로 전통 건축에 대해 더 많이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내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위 안내를 준비하며 안내자가 세운 계획 중 안내 내용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 ① 전통 건축 부재를 연구해야 하는 의의에 대해 알려 줘야겠어.
- ② 방문객들이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개념에 대해 설명해 줘야겠어.
- ③ 전통 건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길 당부하는 말로 마무리해야겠어.
- ④ 전통 건축 부재 보존 센터가 탄생하게 된 배경과 관련된 실제 사건을 알려 줘야겠어.
- ⑤ 전통 건축 부재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통념을 먼저 제시한 후 정확한 내용을 제시해 줘야겠어.

2. 위 안내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통 건축 부재 보존 방법에 적용된 최첨단 기술의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기존의 문화재 보존 기술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② 전통 건축 부재 보존 센터의 역사와 현재까지의 연구 현황을 구체적 수치를 통해 전달하여 방문객이 문화재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③ 전통 건축 부재 보존 센터의 내부를 안내할 때에는 방문객이 질문하는 내용과 그에 대한 답변을 중심으로 안내를 진행하여 청중의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
- ④ 전통 건축 부재 보존 센터의 외형을 잘 알려진 건축물의 모습과 비교하여 건축물의 설계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부분이 무엇인지 방문객이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⑤ 전통 건축 부재 보존 센터의 핵심적인 공간에 부재가 보관되기 전 이루어지는 단계에 대해 안내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예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3. 다음은 안내를 들은 후 방문객이 작성한 메모이다. 메모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전통 건축 부재 보존 센터
→ 현대식 건축물: 주변 지형과 바람길 고려, 최첨단 기술들로 가득함. ㉠
↳ 습도나 환기가 중요한가 보군.
- 부재
→ 구조물의 뼈대를 이루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여러 가지 재료 ㉡
- 수장고: 복층 구조이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 부재 보존 방법: 건식 세척, 훈증 단계가 신기함.
→ 건식 세척: 벌레나 균을 죽이기 위한 살균 과정 ㉣
→ 공시충과 공시균의 개념에 대해 알게 됨.
→ 전자태그의 역할 = 도서관 도서 정보 시스템과 유사 ㉤
- 전통 건축 부재 보존 센터의 목표: 전통 건축의 가치를 알리는 일
- 느낀 점: 전통 건축 문화 보존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게 됨.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04~07] (가)는 강연이고, (나)는 강연을 들은 학생이 트레킹 참가 학생을 모집하기 위해 작성한 트레킹 모집 안내문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안녕하세요? 강연자 A입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은 트레킹에 대해 처음으로 관심을 갖고 계획을 세워 보려는 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다른 강연에서 이제 막 트레킹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트레킹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을 드렸더니 어떤 분께서 무조건 오랫동안 많이 걷는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트레킹은 1박 이상의 중장거리 종주 트레킹에서부터 가벼운 배낭을 메고 산

이나 들을 여유 있게 걸어 이동하면서 자연을 감상하는 코스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트레킹을 즐길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안전입니다. 오늘은 안전한 트레킹을 위한 준비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요? (대답을 듣고) 네. 맞습니다. 계획서입니다. 가장 먼저 트레킹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무작정 당일에 출발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계획을 세워 준비하는 것이 좋고, 특히 시설물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려면 한 달 전에는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트레킹 계획자라 생각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레킹의 목적을 생각해 볼까요? 트레킹의 목적은 높은 산의 등정일 수도 있고, 체력 향상, 문화 유적 체험일 수도 있으며, 일출이나 풍경 감상 등 매우 다양하게 정할 수 있으니 먼저 자신의 트레킹 수준, 시간 등을 함께 고려해 트레킹의 목적을 세워 보세요. 처음부터 너무 무리한 목적을 세워 진행하는 것보다 초보자들은 당일 트레킹부터 시작해 장비를 쓰는 것에 익숙해지면 시간과 난도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와 함께 가는 것이 좋을까요? (대답을 듣고) 혼자자요? 진심이세요? 이야, 대단한데요. 물론 트레킹은 혼자서 떠날 수도 있고 가족, 친구, 연인 등 추억과 성취감을 공유할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함께 떠날 수 있습니다. 계획자로서 일반적으로 팀을 구성할 때는 길잡이 역할을 해 줄 리더와 비슷한 페이스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만 부대끼는 것이 별로고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다면 혼자 길을 나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혼자 트레킹을 갈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초보자든 트레킹 전문가이든 모두 지켜야 할 요소입니다. 반드시 일기 예보를 확인하고 만일에 대비해 꼭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적지와 코스, 일정을 알려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정보를 얻기 위해 강연을 듣는 것은 모두 안전을 위한 일이니 절대로 잊지 말아 주세요.

자! 다음으로는 트레킹에 필요한 준비물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트레킹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원인 중 하나가 준비물 챙기는 것에 대한 지식 부족에 있습니다. 가벼운 트레킹이니 아무런 준비 없이 오시는 분도 계시고, 지나치게 많은 준비를 해서 오히려 고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만큼 꼭 필요하거나 주의해야 할 사항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레킹 장비는 우리의 몸과 같은 존재입니다. 화면을 보시죠. 무엇일까요? 네. 트레킹화입니다. 초보자가 짧은 코스를 가는데 굳이 트레킹화까지 신을 필요가 있을까? 운동화처럼 간단한 신발을 신는 것이 어떨까 생각되지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트레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부상 방지를 위해서라도 발이 받는 피로감과 충격을 줄여 주고 쉽게 미끄러지지 않는 트레킹화가 꼭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배낭을 꾸려 봅시다. 지나치게 짐을 많이 꾸려 오시는 분들의 문제점이 여기서 나타나는데요, 출발 전에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필요한 것처럼 느껴져 다 담아 가지만 무작정 많이 담거나 두서없이 물건을 넣으면 필요한 것을 찾아 쓸 수도 없고 힘만 들어 트레킹이 시작되면 모든 짐을 내던지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배낭을 잘 꾸리는 요령이 필요합니

다. 자, 다음 화면입니다. 배낭입니다. 먼저 무거운 짐은 어디에 넣을까요? (대답을 듣고) 아래쪽이요? 많은 분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무거운 짐은 위쪽과 등 쪽, 가벼운 짐은 아래쪽과 바깥쪽에 넣습니다. 그래야 무게가 분산되어 힘이 덜 듭니다. 큰 배낭을 메다 보면 어디까지가 위인지 아리송하지만 위쪽에는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넣고 내리막길에서 무게가 쏠리지 않도록 무거운 것들을 어깨보다 위쪽으로 두지는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컵이나 스틱, 옷 등을 배낭 밖 고리에 매다는 경우가 있는데 배낭의 외부는 간결하게 정리해야 안전합니다. 몸이 움직일 때마다 다른 장비들이 흔들리면 체력이 분산되기도 하고 나뭇가지 등에 걸리기도 쉽습니다. 되도록 배낭 안에 모든 짐을 넣고 배낭의 좌우 모양이 균형을 이루고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다음은 이것입니다. 스틱 2개죠. 스틱은 초보자이든 숙련자이든 구분 없이 안전한 트레킹을 위해 꼭 필요로 하는 준비물이고 2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해야 할 것이 스틱입니다. 종종 먼저 올라간 분이 뒤에 오시는 분을 스틱으로 당겨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스틱으로 사람을 끌어당겨서는 안 됩니다. 스틱은 일반적으로 3~4단으로 분리되는데 동행자를 도와준다고 스틱을 내밀었다가 스틱이 분리되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트레킹 중간중간 수시로 스틱이 느슨해지지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초보자분들이 익숙하지 않아 스틱을 사용하지 않거나 잘못 사용해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해주세요. 자, 오늘 강연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트레킹 준비는 가능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제가 직접 다녀온 우리나라와 세계 유명 트레킹 코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트레킹 모집 안내문]

- [A] -

늘 열정으로 가득 찬 B 학교 학생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C동아리 대표 D입니다. 지난 교내 점심 방송 시간에 소개된 사연을 기억하십니까? 수행 평가와 각종 학교 대회, 시험 준비 등으로 하늘을 쳐다본 기억이 언제인지 잘 모르겠다던 2학년 학생의 사연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잠시나마 여유를 찾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자 이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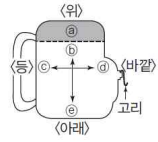
C동아리에서 다가오는 X월 X일 무더운 이곳을 벗어나 녹음이 우거진 자연 속에서 쉴 수 있는 트레킹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출발하여 당일 돌아오는 일정으로 무리없이 여유로운 마음으로 친구들과 함께 추억을 쌓기 위한 트레킹이므로 운동을 잘 못한다고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트레킹에 대해 잘 모른다고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친구들과 자연 속에서 좋은 추억을 쌓고자 하는 분이라면 누구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안내사항을 참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신청을 기다리겠습니다.

■ 출발 일시: X월 X일 X시

- 출발 장소: 학교 운동장
- 준비물: 트레킹화, 배낭, 스틱 등
- 신청 자격: 트레킹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이면 누구나 가능. 초보자 대환영
- 신청 방법: 절취선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여 X월 X일까지 동아리실로 제출
- 준비물 안내 및 ㉠유의 사항



㉡ 트레킹화



㉢ 배낭



㉣ 스틱

〈유의 사항〉

㉡ _____

㉢ _____

㉣ _____

■ 트레킹 일정 안내 및 참가 신청서

4.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보 기 > —

- ㄱ.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장비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ㄴ. 익숙한 관용구를 사용하여 청중에게 낯선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ㄷ. 묻고 답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청중과 활발히 상호 작용하고 있다.
 ㄹ. 사고 발생 사례들을 나열하여 위험한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ㅁ. 비슷한 특징을 가진 청중을 대상으로 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강연을 시작하고 있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5. 다음은 강연자가 강연을 하기 전 생각한 내용이다. 강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청중이 트레킹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님을 고려해 ①트레킹을 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부터 설명해야겠어. 그리고 ②트레킹을 하는 목적이 매우 다양함을 알려 주고 초보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도 알려 줘야지. 특히 ③초보자가 트레킹을 할 때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전문가와의 차이점임을 강조해야겠어. 트레킹을 할 때 ④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안전임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트레킹에 필요한 준비물도 안내해 준 후, ⑤다음 시간에 있을 강연 내용을 안내하며 마무리해야겠어.

- ① ①
② ②
③ ③
④ ④
⑤ ⑤

6. 아래 <조건>을 고려하여 (나)의 [A]에 들어갈 부제를 작성하였다. [A]에 들어갈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조 건 > —

- 대구법을 사용할 것.
-계절적 배경을 드러낼 것.
-행사 기획 취지를 드러낼 것.

- ① 대자연의 신비를 직접 느낄 수 있는 곳, 아름다움이 가득한 여행을 원하시나요?
② Z시를 출발하여 Y산을 돌아오는 여정, 일출과 일몰을 한곳에서 모두 볼 수 있는 그곳
③ 무더운 여름날 느끼는 조상의 숨결, 500년의 시간이 머무는 곳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④ 뜨거운 태양을 피해! 노래하는 계곡을 향해! 더위를 벗어나 여유를 느끼고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곳, X계곡
⑤ 느리게 걷고, 마음껏 느끼고, 편안히 휴식하라! 일상을 벗어나 여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V산으로 함께 떠나요.

7. (가)의 강연과 관련하여 (나)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발의 피로감과 충격을 줄여 주고 쉽게 미끄러지지 않는 트레킹화로 준비
운동화를 신고 오는 것은 지양해 주세요. ①
㉡: 무게 중심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에는 자주 사용하는 물건을 넣어 주세요. ②
㉣: ㉢, ㉣에는 무거운 짐을, ㉣, ㉣에는 가벼운 짐을 넣어 주세요. ③
자주 사용하는 컵이나 옷 등은 배낭 밖 고리에 걸어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④
㉤: 전문성 여부를 떠나 안전한 트레킹을 위해 2개를 준비해 주세요.
절대 타인을 도와주는 용도로 스틱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⑤

- ① ①
② ②
③ ③
④ ④
⑤ ⑤

[08~10] 다음은 학생이 작성한 자기소개서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저는 고등학교에 올라오기 전까지 저의 진로에 대한 목표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진로 캠프에도 참여해 보고 진로 상담도 많이 받았지만 꼭 하고 싶은 일을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주 우연한 기회에 저는 제 진로 목표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국어 시간에 한 학기 한 권 읽기 프로젝트로 진로 독서를 실시하였는데, 우연히 읽게 된 책 속에 수록된 한 편의 글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것은 낸시 펄이 쓴 ‘상상을 실현하는 자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은 작가의 독서 경험을 담은 것인데 작가가 독서를 통해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독서가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피처였다면 어느 순간 독서는 그녀가 세상을 바라보는 통로이자 도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1998년에 시애틀 공공 도서관의 사서였던 그녀는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을 전개하였고, 이후 이 운동이 미국 전역에 확산되었습니다. 낸시 펄은 꾸준히 많은 사람들에게 책을 소개하고 나누는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책을 통해 변화했고 마음이 치유되었습니다. 한 권의 책이 사람들을 이어 주고 사람들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그녀의 신념이 사회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저는 책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낸시 펄처럼 사람들에게 좋은 책을 소개하고, 책을 나누는 삶을 살면 가치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꿈을 펼치기 위해서 저는 학교에서 저와 생각이 비슷한 친구들과 함께 책 나눔 동아리를 만들었고, 동아리명을 ‘책꿈지기’라고 지었습니다. 여기에는 책을 통해 꿈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고 싶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도서관의 사서 선생님을 찾아가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도와주시겠다고 하셔서 저는 우리 학교의 책 나눔 동아리 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도서관의 도서 정리를 도와주는 독서 동아리도 있었지만 저는 동아리 활동의 영역을 교내로 한정하지 않고 학교 밖의 마을로 확장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 마을에 있는 A도서관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도서관장님께 마을 도서관과 마을에 사는 학생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독서 나눔 행사에 관한 제안을 드렸는데 마침 A도서관에서도 학생들의 독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 마련이나 행사들을 기획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동아리에서는 방과 후에 도서관을 찾아가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 주는 봉사도 하였고, 책을 읽고 싶지만 몸이 불편해서 도서관에 나오지 못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해서 학교 앞 노인정에 책을 배달하는 활동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시던 분들이 봉사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책이 오는 날을 기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새 책을 가지고 가서 가끔 책도 읽어드리고 원하시는 책 목록도 받아 오는 날이면 그 뿌듯한 마음을 이루 설명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학교에서는 가을 독서주간에 ‘책 아나바다’ 행사도 진행하여, 집에 있는 책들을 학교로 가져와서 다른 친구들과 나누고 책갈피 만들기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8. 다음은 학생이 초고를 작성하기 위해 쓴 메모이다. 메모의 내용 중에서 위 초고에 반영된 계획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나의 진로 목표를 세우는 데 도움을 준 학교 밖 진로 체험 활동의 사례들을 제시해야겠어.㉠
-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주었던 독서 경험이 드러나도록 내용을 작성해야겠어.㉡
- 진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겪게 된 역경을 중심으로 나의 도전 정신이 잘 드러나도록 내용을 작성해야겠어.㉢
- 내가 선택한 진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점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작성해야겠어.㉣
-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내적 갈등과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키고자 하는 나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내용을 작성해야겠어.㉤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9. <보기>는 위 초고를 읽은 담임 선생님의 조언 내용이다. 이를 반영하여 마지막 부분에 추가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 진로와 관련하여 실천했던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네가 깨달은 내용,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하여 어떤 분야를 공부하고 싶은 지를 밝혀야 할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자신이 지원하는 대학교의 인재상에 어울리는 인물을 드러내는 것으로 마무리하면 인상적일 것 같구나.

- ① 저는 이와 같은 동아리 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A대학교 문헌 정보학과에 진학해 우리나라의 독서 정책이나 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더욱 심도 있게 공부하고 싶습니다. 지역 도서관이 지역 시민들에게 지식의 허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해외의 다양한 사례들도 탐구하고 싶습니다. 저의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태도는 A대학교의 인재상과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 ② 저는 동아리 활동들을 통해서 책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변화시켜 줄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책을 나누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통해 사람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A대학교 문헌 정보학과에 진학해 우리나라의 독서 정책이나 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더욱 심도 있게 공부하고 싶습니다.
- ③ 저는 재학 중에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진취적인 태도와 도전 정신을 갖추었고, 이러한 저의 모습은 A대학교가 추구하는

인재상과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A대학교 문헌 정보학과에 진학해 고등학교의 동아리 활동의 경험을 살려 다양한 독서 정책을 연구하고 이것을 실제 도서관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미래 사회에서도 도서관이 지역 사회 지식의 허브로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 ④ 저는 이 활동들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봉사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많은 희생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숨은 봉사과 헌신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초석이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A대학교 문헌 정보학과에 진학해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했던 봉사 활동들을 꾸준히 이어가기 위해서 관련된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저의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삶의 태도는 A대학교가 추구하는 인재상과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 ⑤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세대를 초월하여 책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해 줄 수 있다는 점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통해 사람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A대학교 문헌 정보학과에 진학해 우리나라의 독서 정책이나 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더욱 심도 있게 공부하고 싶고, 우리나라의 도서관이 마을과 학교, 지역 사회를 이어 주는 지식의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러한 저의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삶의 태도는 A대학교가 추구하는 인재상과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10. <보기>는 위 초고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참고한 점검 목록이다. 초고 작성 시 반영된 것만을 고른 것은?

㉠ 독자를 고려하여 격식을 갖추어 쓰고 있는가?

㉡ 재학 중의 자기 주도 학습 경험을 진술하였는가?

㉢ 진로와 관련한 교내·외 활동 내용을 드러내었는가?

㉣ 지원자의 성장 과정과 성격의 장단점을 드러내었는가?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에는 ‘연음’이라는 중요한 발음 원리가 있다. 이것은 자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조사, 어미, 접미사)가 결합할 때 일어난다. 가령 ‘뭉-’이라는 용언 어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 -으면’이나 접미사 ‘-음’이 결합하면 ‘뭉어[무꺼], 뭉으면[무끄면], 뭉음[무꿈]’에서 보듯이 어간의 마지막 자음 ‘ㄱ’이 뒤 음절 초성으로 넘어가서 발음하게 되는 것이다. 모음과 모음 사이에 놓인 자음은 종성보다는 초성에서 발음하는 것을 언어 보편적으로 선호하는데, 이러한 경향이 구체화된 것이 연음이라고 할 수 있다.

연음을 음운 변동의 한 종류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옳지 않다. 연음이 일어나면 자음의 위치가 앞 음절의 종성에서 뒤 음절의 초성으로 옮겨질 뿐, 자음 자체가 다른 음운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가령 앞의 예에서 어간 ‘뭉-’의 말음인 ‘ㄱ’이 연음이 되었다고 해서 ‘ㄱ’이 다른 자음으로 교체되거나 탈락 또는 축약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연음을 음운 변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연음이 일어나는 조건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나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는 조건과 배타적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연음이 일어나는 환경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나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지 못한다. 앞에서 말했듯이 연음은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 일어난다. 따라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나 자음군 단순화는 연음이 일어나지 않는 조건, 즉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일반화할 수 있다.

연음은 매우 중요한 현상이지만 예외도 없지는 않다. 앞 형태소의 자음이 그대로 뒤 음절 초성으로 이동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는 것이다. 가령 ‘밭’ 뒤에 주격 조사나 서술격 조사가 결합하면 ‘밭이[바치], 밭이다[바치다]’와 같이 ‘ㄷ’이 ‘ㅈ’으로 바뀐다. 이것은 구개음화라는 음운 변화 때문에 일어난 예외이다. 구개음화가 없던 시절에는 ‘밭이, 밭이다’가 ‘[바티], [바티다]’로 발음되었다. 이 외에도 연음의 예외는 더 존재한다.

11. 윗글을 읽고 현실 발음을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닭이’를 ‘[다기]’로 발음하는 것은 잘못이군. ‘[달기]’가 올바른 발음이야.
- ② ‘꽃에’를 ‘[꼬세]’로 발음하는 것은 잘못이군. ‘[꼬체]’가 올바른 발음이야.
- ③ ‘밭을’을 ‘[바슬]’로 발음하는 것은 잘못이군. ‘[바출]’이 올바른 발음이야.
- ④ ‘부엌에’를 ‘[부어게]’로 발음하는 것은 잘못이군. ‘[부어케]’가 올바른 발음이야.
- ⑤ ‘여덟이’를 ‘[여더리]’로 발음하는 것은 잘못이군. ‘[여덜비]’가 올바른 발음이야.

12. 윗글을 읽고 ㉠~㉣을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 ‘흙-’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흙이다’는 ‘[흙치다]’로 발음한다.
 ㉡ ‘끓-’에 어미 ‘-어’가 결합된 ‘끓어’는 ‘[끄러]’로 발음한다.
 ㉢ ‘값’에 접미사 ‘-어치’가 결합된 ‘값어치’는 ‘[가버치]’로 발음한다.

- ① ㉠은 연음의 예에 속하지만 ㉡, ㉢은 연음의 예외이다.
- ② ㉡은 연음의 예에 속하지만 ㉠, ㉢은 연음의 예외이다.
- ③ ㉢은 연음의 예에 속하지만 ㉠, ㉡은 연음의 예외이다.
- ④ ㉡, ㉢은 연음의 예에 속하지만 ㉠은 연음의 예외이다.
- ⑤ ㉠, ㉡, ㉢은 모두 연음의 예외이다.

13.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의 활동을 할 때, ㉠~㉣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1 >

형태소는 의미를 갖는 가장 작은 문법 단위를 말한다. 형태소는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구분할 수 있다. 자립 형태소는 자립성이 있어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지 않아도 되는 형태소이고, 의존 형태소는 반드시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여야만 쓰일 수 있는 형태소이다. 형태소가 갖는 의미에 따라 형태소를 분류할 수도 있는데 어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실질 형태소라고 하고, 문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형식 형태소라고 한다.

< 보 기 2 >

※ 다음 문장에서 분석되는 형태소를 써 보고, 제시된 기준에 따라 분류해 보자.

아이가 마당에 앉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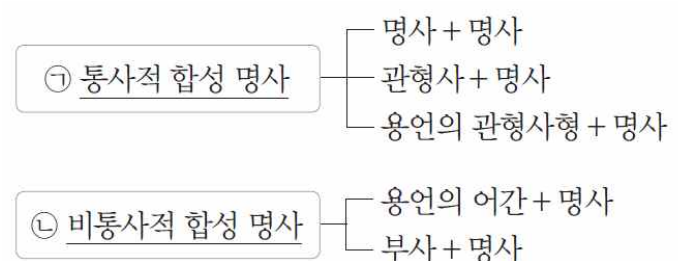
- (1) 분석되는 형태소: ㉠
- (2) 형태소의 분류: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실질 형태소	㉡	㉢
형식 형태소	㉣	㉠

- ① ㉠에 들어갈 형태소는 모두 8개이다.
- ② ‘아이’는 자립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이므로 ㉡에 들어간다.
- ③ ‘앉-’은 의존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이므로 ㉢에 들어간다.
- ④ ‘에’는 자립 형태소이면서 형식 형태소이므로 ㉣에 들어간다.
- ⑤ ‘-다’는 의존 형태소이면서 형식 형태소이므로 ㉠에 들어간다.

14. (가)의 ㉠, ㉡에 해당하는 예를 (나)에서 골라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가) 우리말 합성 명사는 그 구성 성분의 배열 방식이 일반적인 우리말 구성 방식과 같은지 여부에 따라 통사적 합성 명사와 비통사적 합성 명사로 구분할 수 있다. 통사적 합성 명사는 두 어근의 배열 방식이 일반적인 구와 동일하고, 비통사적 합성 명사는 그렇지 못하다. 이들을 유형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나) 접칼, 검버섯, 굳은살, 산나물, 산들바람, 늪은이, 새해

- ㉠
- ① 검버섯, 늙은이
 ② 산나물, 산들바람
 ③ 굳은살, 산나물
 ④ 검버섯, 새해
 ⑤ 늙은이, 산나물
- ㉡
- 산나물, 산들바람
 접칼, 검버섯
 접칼, 산들바람
 굳은살, 늙은이
 검버섯, 새해

15.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菩薩(보살)이 王(왕) ㅅ외야 ㉠겨샤 나라홀 아스 ㉡맞디시고 道理(도리) 비호라 나아가샤 瞿曇婆羅門(구담바라문)을 만나샤 ㉢즈갓 ㉣오스란 밧고 瞿曇(구담)이 오슬 니브샤 深山(심산)에 드러 과실(果實)와 ㉤물와 작시고

[현대역] 한 보살이 왕 되어 계시어 나라를 아우에게 맡기시고 도리 배우러 나가시어 구담바라 문을 만나셔서 당신의 옷은 벗고 구담의 옷을 입으시어 깊은 산에 들어 과일과 물을 자시고
 - 『월인석보』 권1

- ① ㉠: 주어를 높이는 데 쓰이는 동사이다.
- ② ㉡: 주어와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 ③ ㉢: ‘보살’을 가리키는 재귀 대명사가 쓰였다.
- ④ ㉣: ‘밧다’의 목적어로 쓰이고 있다.
- ⑤ ㉤: 문장 성분을 나타내는 격조사가 생략되었다.

[16 ~ 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법은 인간의 생활 관계에서 바른 질서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 규범이다. 일반적으로 법의 적용은 삼단 논법을 따르는데, 추상적인 법규를 대전제로 하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소전제로 하여 판결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낸다. 대전제인 법규가 명확하고 소전제인 사실 관계가 ㉠확정된 것이라면 삼단 논법을 통해 논리 필연적으로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은 소송을 제기한 측인 원고(原告)와 소송을 당한 측인 피고(被告)의 분쟁을 다루는 도구이기에 그렇게 간단히 삼단 논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 중 하나는 소전제가 되는 사실 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이다.

우리나라 법제에서 사실 관계의 확정에는 반드시 증거에 기초하여야 하는데, 그 사실 관계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조사됨으로써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소송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피고가 그대로 인정하면 증거를 조사할 필요 없이 바로 판결로 이어진다. 이른바 청구의 인낙(認諾)*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청구의 인낙이 일어나는 경우는 대개의 소송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대신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법률상 다른 주장을 펴는 예가 가끔 있는데, 이 경우에도 증거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증거 조사란 사실 관계에 대하여 쌍방 간에 다툼이 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에는 바로 판결을 하는데, 그 결론은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예외가 있다면 원고의 주장이 그 자체로서 타당한 근거를 가지지 못한 경우이다.

그러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피고가 인정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증거 제출에 대해 피고가 변론(辯論)

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부인(否認), 그러한 사실 관계의 존재 여부를 잘 모르겠다고 하는 부지(不知),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침묵(沈默)의 태도를 취할 수 있다. 이때 피고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는 그 후의 심리(審理)* 전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침묵의 태도를 취한 경우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명백하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자백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진다. 부인을 한 경우와 부지로 답한 경우는 원고가 증거로 인정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법정에 제출된 자료가 증거로 인정되면, 법관은 이를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확정하는 심증(心證)을 형성하고 법을 적용하여 판결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를 증거로 인정하기 위해 증거에 쓰이는 기초 사실을 증명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고, 때로는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입증에 따르는 곤란을 피하기 위해 일정한 사실 관계의 존재나 부존재를 ㉠추정(推定)하거나 ㉡의제(擬制)하기도 한다. 추정은 어떤 사항과 동일한지의 여부가 불확실한 다른 사항을,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일단 진실로 가정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두 사람이 동일 사건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측하여 인정하는 것이 추정의 예인데, 추정은 불이익을 받는 자가 반대 사실 관계를 입증하면 ㉢번복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의제란 어떤 사항이 다른 사항과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두 사항을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을 말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의 청구권에 있어서 태아(胎兒)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즉 법이 공익상의 필요 등 때문에 사실 관계의 존재나 부존재를 법 정책적으로 확정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회생활의 필요에 의해 사실로 확정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반증만으로 번복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 청구의 인낙: 피고가 원고의 청구 내용인 권리나 주장을 전면적으로 긍정함.

*심리: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원이 증거나 방법 따위를 심사하는 행위.

16. 윗글을 근거로 할 때, 제시된 내용의 진위를 바르게 판단한 것은?

	내용	진위의 판단
①	대개의 소송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피고가 반박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지 않다.
②	법은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 규범으로, 소송을 제기한 측과 소송을 당한 측의 분쟁을 다루는 도구이다.	그렇지 않다.
③	‘부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피고가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가 변론할 때 취할 수 있는 태도 중 하나이다.	그렇지 않다.
④	사실 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고 그와 관련된 법규가 명확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삼단 논법에 의해 올바른 결론을 이끌어 내기 어렵다.	그렇다.
⑤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의 청구권에 있어서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은 ‘추정’에 의해 사실 관계를 확정하는 것에 해당한다	그렇다.

17.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제시된 소송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확정되지 않은 사실 관계: ‘을’이 ‘갑’의 자전거를 고의로 망가뜨렸다.
- 소송 전개: ‘갑’이 ‘을’에 대해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 사실 관계와 관련한 법규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① 사실 관계가 확정되어 삼단 논법에 따라 법이 적용될 수 있게 된다면 민법 제750조는 대전제, “ ‘을’ 이 ‘갑’ 의 자전거를 고의로 망가뜨렸다.” 는 소전제가 되겠군.
- ② ‘을’ 이 ‘갑’ 의 자전거를 고의로 망가뜨렸다는 물증이 소송 전개 중에 발견되어 증거로 인정되었다면 법원은 이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정하는 심증을 형성하겠군.
- ③ ‘을’ 이 ‘갑’ 의 자전거를 고의로 망가뜨렸다는 증거가 ‘갑’ 에 의해 제시되고 ‘을’ 에 의해 청구의 인낙이 이루어졌다면, 증거를 조사할 필요 없이 판결로 이어지겠군.
- ④ ‘을’ 이 ‘갑’ 의 자전거를 고의로 망가뜨렸다는 증거를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법률상 다른 주장을 펼쳤다면 증거 조사를 실시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군.
- ⑤ ‘을’ 이 자전거를 고의로 망가뜨렸다는 증거를 ‘갑’ 이 제출한 것에 대해 ‘을’ 이 침묵의 태도를 취했다면, 이후 재판 과정에서 침묵이 ‘을’ 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군.

18.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특징이 있다.
- ② ㉡은 본질이 다른 것을 법률상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킨다.
- ③ ㉠은 ㉡과 달리 반대 사실 관계만 입증된다면 번복될 수 있다.
- ④ ㉡은 ㉠과 달리 법규에 의해 일정한 사실 관계의 존재나 부존재를 확정하지 않는다.
- ⑤ ㉠과 ㉡은 모두 입증에 따르는 곤란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19.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일을 확실하게 정함.
- ② ㉡: 알맞게 이용하거나 맞추어 씀.
- ③ ㉢: 사물의 내용을 명확히 알기 위하여 자세히 살펴보거나 찾아 봄.
- ④ ㉣: 어떤 사실이나 주장이 옳지 아니함을 그에 반대되는 근거를 들어 증명함.
- ⑤ ㉥: 이리저리 뒤쳐 고침.

[20 ~ 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는 오십 리를 못 가서 발이 부르텔다. 그는 한 시간에 십 리를 걸었다 하면 지금은 그것의 절반 오 리도 못 걸었다.

그는 발 부르튼 것을 길가에 서서 지긋지긋 눌러 보며 혼잣속으로, ‘흥, 올 적에는 기차 타고 온다. 정거장에서 짐까지가 오 리밖에 안 되니 그때는 잠깐 걸지…….’

그러나 그는 주머니 속을 생각하여 보았다. 발병이 나지 않고 그대로 출창 잘 걸어간다 해도 닳새나 돼야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주머니에 있는 행자는 얼마나? 빠듯하게 쓰고도 남을지 말지 하다.

해는 저 간다. 가슴에서는 공연히 무서운 생각이 났다. 만일 발병이 더하여 길을 못 가게 되면 어찌하나. 그는 용기가 줄어들고 희망에 구름이 끼는 것 같았다.

그는 비척비척 맥이 없이 걸어가며 궁리해 보았다. 그는 자기가 가는 길가에 아는 사람의 집을 모조리 생각해 보았다.

말할 만한 집이 하나도 없었으나 거기서 한 십 리쯤 샅길로 휘어 들어가면 거기 큰 촌이 하나 있었다. 그 촌 이름을 여기에 쓸 필요가 없으매 그만두지마는 그 촌에는 자기 아버지가 한참 호기 있게 ㉠돈을 쓰고 그 근처 읍에 이름 있는 부자로 있을 때 소작인으로 있던 사람이 생각난다.

그는 그를 자기 집 사랑에서 자기 아버지 앞에 황송한 태도로 앉아 있는 것을 보기는 보았을지라도 그의 집을 찾아간 일은 물론 없었다.

㉡ ‘옳지…….’ / 형근은 무릎을 쳤다.

‘김 서방을 찾아가면 얼마간이라도 돌릴 수가 있을 터이지, 거저 달래는 것인가? 돌아올 때 갚을걸!’

그는 김 서방의 상전이란 관념이 있다. 옛날에 자기 아버지의 은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은덕을 배운 자의 아들의 편의를 보아 주는 것도 떳떳한 일이라 하였다.

즉 자기 마음이 그러니까 남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하였다.

그는 허위단심 김 서방 집을 찾았다. 그 집 앞에는 흰한 논과 밭이 있고 집은 대문이 컸다. 주인을 찾으매 정말 김 서방이 나왔다. 김 서방은 반가워하면서도 놀랐다. / “이게 웬일야?”

김 서방은 존대도 아니요 하대도 아니요 어리벉벉하게 말을 해 버린다. 형근은 이것이 의외였다. 아무리 세상이 망해서 내가 제 집을 찾아왔기로 어디를 보든지 말버릇이 그렇게 나오지는 못할 것이었다.

㉢ “어서 들어가세.”

이번에는 하계가 나왔다. 형근의 얼굴은 노래졌다가 다시 붉어졌다. 그는 대답이 없었다. 마당에 서서 해만 바라보았다. 해는 벌써 저쪽 서산 위에 반쯤 걸리었다.

그러나 그는 단념하였다. 자기가 노동을 하러 피나리봇짐을 지고 가는 이 시대에서는 무엇보다도 돈이 있어야 한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된다. 양반도 되고 남을 부릴 수도 있으니까 자기도 돈을 벌어서 다시 옛날의 문벌을 회복하고 남도 부려 보리라 하였다. 그러니까 지금은 참아야 한다. 숙명적으로 그는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이니까 단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철원에 도착한 지형근은 친구를 만나 다른 노동자들과 읍에서 함께 살게 된다. 일자리를 찾아 준다는 조 주사에게 이끌려 술집에 갔다가 한동네에 살던 이화가 창기가 된 것을 보고 놀란다.

그렇게 지내기를 닳새를 넘고 열흘이 넘었다.

조 주사라는 자를 장거리에서 한두 번 만났으나 코웃음을 치고 우물쭈물 얼렁얼렁하고 핵 피해 버릴 뿐이요 전과는 뽀판이요, 동향 친구는 사람이 입이 무거워서 말은 아니 하지마는 그래도 기색이 좋은 기색은 아니었다. 그뿐 아니라 그 더운 여름에 그 지저분한 곳에서 여벌 옷 한 벌을 입고 지내려니까 온몸에서 땀내가 터지게 나고 옷이 척척 달라붙어서 거북하고 끈적끈적하기 짝이 없다.

그는 비로소 사람 많이 사는 데 인심 강박한 것을 알았다.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힘써 주는 이 없고 더구나 서로 으르렁대고 뺏어 먹으려고 하는 것뿐인 것을 알았다.

그뿐 아니라 그는 지금까지 시골서는 양반이었고 행세하는 사람이요, 먹을 것은 없으나 그래도 일 군에서 누구라면 알아주기는 하였으나 지금 여기 와서는 지형근의 존재가 없다. 그뿐이면 오히려 예사이지마는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 남의 것을 빌어먹다시피 하는 사람이 된 것을 생각할 때 그는 자기가 불쌍하니 보라도 웬일인지 가슴에서 무서운 생각이 날 뿐이다.

자기가 이화를 보고 그 계집이 창기가 된 것을 비웃었으나 그는 오늘에 거의 비렁뱅이가 된 것을 생각하고 눈이 아플 만큼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곳에 온 지 열흘이 넘도록 그는 일이라고는 붙들여 보지를 못하였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같이 잠을 자는 축에도 십여 명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는 이상해서 하루는 물었다.

“당신들도 일자리가 없어서 노시우.” / 그들은 서로 얼굴들을 보더니 그중 한 사람이,

“㉠그렇소, 요새는 여름이 되어서 전황*한 까닭에 일본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우. 그래 일자리가 펍 드물쥬. 그렇지만 가을만 되면 좀 괜찮쥬.”

“가을에는 일본 사람들이 돈을 풀어놓나요?”

“㉡풀다뿐요? 작년 가을에도 여기 수만금 떨어졌소. 오죽해야 돈 소내기가 온다 했소.” 형근은 다만, / ㉢ “네에, 그래요?” / 하고 말을 못 했다.

“가을까지만 기다리시우. 그때는 괜찮으시리다. 저것 좀.” / 하고 전차길 깔아 놓은 걸 가리키며, “저것 놓는 데도 돈이 산더미같이 들었소. 지긋지긋합니다.”

형근은 말에 배가 불러서 공연히 좋았다. 속으로 가을만 되면 태산만큼은 그만두고라도 그 한 모퉁이쯤은 생기려니 하고 혼자 좋았다.

㉣돈 생기는 생각만 하면 이화 생각이 난다. 이화 생각이 나면 이화 집에 가고 싶다. 젊은 가슴은 그림자를 붙잡으려는 듯한 부질없는 정열로 해서 애를 쓴다.

그는 밤중만 되면 이화 집 앞을 돌아온다. 갈 적에는 혹시 이화의 그림자라도 보았으면 하고 가기는 가지마는 어찌 그런 일에 그러한 공교로움이 있을 리가 있으랴.

갔다가는 헛되이 돌아오고 돌아올 때에는 스스로 다시 안 가기를 맹세한다. 맹세만 할 뿐이 아니라 이화를 멀리하고 욕하고 침 뱉었다. / 그러나 그 이튿날이 되면은 아니 가려 하다가도 자연히 발길이 그쪽으로 향하여져서 으레 허행일 것을 알면서도 다녀오지 않을 수가 없었다.

- 나도향, 「지형근」

*전황: 돈이 잘 융통되지 아니하여 귀함.

20.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현재의 어려움을 벗어날 계책을 떠올린 것에 대한 만족감이 담겨 있다.
- ② ㉡: 형근에게 하대를 함으로써 과거와는 달라진 인물 간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 일자리가 없어 이상해하는 형근의 판단이 맞다고 인정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형근에 대한 인물의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상대가 말한 내용을 듣고 생겨난 형근의 기대감을 암시하고 있다.

21.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계층 간 첨예한 갈등을 해소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 ② ㉢은 타인의 노동을 통해 얻게 되어 있는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
- ③ ㉠은 인물 간 화해를 위한, ㉢은 인물 간 협력을 위한 용도와 관련되어 있다.
- ④ ㉠은 부유했던 과거 상황과, ㉢은 인물의 욕망과 연관된 현재 상황과 연결되어 있다.
- ⑤ ㉠과 ㉢은 모두 나태했던 생활에 대한 인물의 반성적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

2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작품은 1926년 『조선문단』에 발표된 소설로, 몰락한 양반 가문의 후손인 ‘지형근’이 노동자 신세로 전락해 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현실적인 처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과거의 낡은 관념 속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일제 강점기의 임금주의 풍조, 실업에 허덕이는 노동자들의 현실, 시대의 변화에 기인한 신분 제도의 해체와 같은 사회상을 비판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어수룩한 주인공의 왜곡된 가치관이나 현실 인식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 ① 아버지의 ‘소작인’이었던 김 서방을 여전히 자신보다 낮은 신분으로 생각하는 형근의 모습에서, 과거의 낡은 관념 속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인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형근의 모습에서, 돈에 의해 인간이 지배되기에 이른 왜곡된 근대화 과정의 어두운 이면을 떠올릴 수 있군.
- ③ ‘다시 옛날의 문벌을 회복하고 남도 부려 보리라’는 형근의 생각에서, 신분 제도가 해체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의 시대착오적인 면모를 확인할 수 있군.
- ④ ‘오늘에 거의 비렁뱅이가 된 것을 생각하고’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토로하는 형근의 모습에서, 극빈의 현실로 전락한 인물의 자괴감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그림자를 붙잡으려는 듯한 부질없는 정열’이라는 서술자의 말에서,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하는 어리숙한 인물이 점차 현실을 자각하는 과정을 그리려는 표현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군.

[23~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반적으로 연도를 표기할 때는 ‘2019년’ 처럼 서기 연도를 활용한다. 또는 ‘기해년’ 처럼 표기하기도 하는데 이를 ‘60갑자’를 이용한 표기 방법이라고 한다. 60갑자는 ‘10간12지’라고도 하는데, 10간은 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 12지는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이다. 이를 결합하는 방법은 10간과 12지를 순서대로 연결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갑자’, ‘을축’ 등과 같은 결합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방식을 반복하면 같은 이름의 연도가 돌아오는 것은 10과 12의 최소 공배수인 60년 후(61년째)가 되는 데, 그래서 61세를 60갑자의 맨 처음으로 되돌아왔다는 의미에서 환갑이라고 한다. 60년 후 제자리로 돌아오는 순환적 속성을 활용하면 60갑자와 서기 연도를 상호 변환할 수 있는데, 이때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 둘 다 양력 1월 1일을 연도 구분의 기준으로 삼는다.

먼저, 가우스의 합동 기호에 대해 이해하면 60갑자를 보고 서기 연도를 알아낼 수 있다. 합동 기호($\equiv$)는 어떤 수를 다른 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기호이다. 구하는 수를 x 라고 했을 때, 3으로 나뉘 나머지가 1인 수를 합동 기호를 사용해 합동식으로 나타내면 ‘ $x \equiv 1(\text{mod}3)$ ’ *이다. 60갑자를 보고 서기 연도를 알아낼 때는 기준이 되는 해를 정하고, 알고자 하는 해가 이로부터 몇 년 전인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 ‘기해년’인 2019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기 위해, 아래 <표>와 같이 10간에는 ‘기’부터 시작해 0~9의 수를, 12지에는 ‘해’부터 시작해 0~11의 수를 붙인다. 여기에서 0~9의 수는 10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0~11의 수는 1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의미한다. 기준이 되는 해인 2019년은 기해년으로 (0,0)으로 표시할 수 있고, 2020년은 경자년으로 (9,11)이 된다. 이때 ‘간’을 나타내는 수는 10년마다 되돌아오므로 $\text{mod}10$, ‘지’를 나타내는 수는 12년마다 되돌아오므로 $\text{mod}12$ 로 바꿔 생각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한 ㉠두 개의 합동식을 모두 만족하는 x 를 구하여 기준이 되는 해에서 빼는 방식으로 서기 연도를 알아낼 수 있다.

10간지	기	경	신	임	계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
	0	9	8	7	6	5	4	3	2	1	0	9	8	7	6	
12간지	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	...
	0	11	10	9	8	7	6	5	4	3	2	1	0	11	10	

<표>

그렇다면 기미 독립 선언서가 발표되고 3·1 운동이 일어났던 ‘기미년’의 서기 연도는 언제일까? 이를 x 년 전이라고 하고 <표>에서 기미년을 찾아보면 (0,4)인데, 이는 ‘ $x \equiv 0(\text{mod}10)$ ’, ‘ $x \equiv 4(\text{mod}12)$ ’라는 두 합동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첫 번째 식은 x 가 10의 배수, 두 번째 식은 $x-4$ 가 12의 배수라는 의미이므로 첫 번째 식을 만족하는 x 는 10, 20, 30, 40……, 두 번째 식을 만족하는 x 는 16, 28, 40, 52……가 된다. 이때 두 식을 모두 만족하는 가장 작은 양의 정수 x 는 40이다. 기준이 되는 해인 2019년에서 40을 빼면 2019년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과거의 기미년은 1979년이다. 그런데 기미 독립 선언은 일제 강점기에 있었으므로 최소한 1945년 이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60년을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기미 독립 선언서가 발표된 기미년은 서기 연도로 1919년임을 알아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서기 연도를 보고 그 해의 60갑자를 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이 태어난 해인 1876년의 60갑자를 구하고자 한다면, 먼저 1876년이 기준이 되는 해인 2019년으로부터 143년 전임을 확인한다. 그리고 143을 1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인지, 1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인지를 구하면 된다. 143은 1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고, 12로 나누

[A]었을 때에는 나머지가 11이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 $143 \equiv 3(\text{mod}10)$ ’, ‘ $143 \equiv 11(\text{mod}12)$ ’가 되는데 위의 <표>에서 3은 ‘병’, 11은 ‘자’ 이므로 1876년은 ‘병자년’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12지가 각각 어떤 동물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면 ‘자’는 ‘쥐’를 의미하므로 김구 선생은 ‘쥐띠’라는 것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을 활용하면 사람들이 태어난 해의 서기 연도를 활용하여 그 해의 60갑자와 띠를 확인해 볼 수 있다.

* mod: 계수를 의미하는 modulus를 줄인 말로, 합동식에서는 ‘몫’이라고도 한다.

23.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합동식과 60갑자의 의미
- 60갑자의 순환적 속성을 중심으로
- ② 연도를 표기하는 방법의 변천사
- 60갑자로 표현된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 ③ 60갑자로 연도를 표기하는 방법
- 10간과 12지의 의미를 중심으로
- ④ 연도를 표기하는 방법 간의 변환
- 합동식을 이용한 상호 변환 방식을 중심으로
- ⑤ 서기 연도로 60갑자를 구하는 방법
- 나머지를 구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24. ㉠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두 개의 합동식을 모두 만족하는 수는 하나뿐이기 때문에
- ② 서기 연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2의 배수가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 ③ 60갑자는 10간 중 하나와 12지 중 하나가 결합되어 만들어지기 때문에
- ④ 기준이 되는 해의 서기 연도에서 10과 12를 순차적으로 빼야 하기 때문에
- ⑤ 각각의 합동식을 만족하는 수로는 하나의 서기 연도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2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 등을 계기로 전국적인 항일 무력전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를 ‘정미의병’이라고 한다. 이러한 항쟁이 일어난 ‘정미년’의 서기 연도를 알아보자. 2019년을 기준으로 이를 x년 전이라고 하면 ‘정미’는 (2,4)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한 두 개의 합동식은 ‘ $x \equiv 2(\text{mod}10)$, $x \equiv 4(\text{mod}12)$ ’가 된다. 첫 번째 식은 x-2가 10의 배수, 두 번째 식은 x-4가 12의 배수라는 의미이므로 두 개의 합동식을 만족하는 가장 작은 양의 정수 x는 (㉠)이다. 기준이 되는 해인 2019년에서 (㉡)를 빼면 2019년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과거의 정미년은 (㉢)이다. 그런데 정미의병은 고종의 강제 퇴위 등을 계기로 일어난 사건이므로 60년을 한 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정미의병이 일어난 정미년은 (㉣)임을 알 수 있다.

	㉠	㉡	㉢
①	42	1977년	1916년
②	42	1977년	1917년
③	52	1967년	1907년
④	52	1967년	1917년
⑤	62	1957년	1897년

26. <보기>를 참고하여, [A]를 이해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12지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동물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 기준이 되는 해는 2019년으로 함.

- ① 동생은 2005년생이니까 병유년에 태어났고, 닭띠이겠군.
- ② 누나는 1998년생이니까 무인년에 태어났고, 호랑이띠이겠군.
- ③ 아버지는 1970년생이니까 경술년에 태어나셨고, 말띠이시겠군.
- ④ 어머니는 1972년생이니까 계축년에 태어나셨고, 소띠이시겠군.
- ⑤ 할머니는 1947년생이니까 정해년에 태어나셨고, 원숭이띠이시겠군.

[27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마돈나] 지금은 밤도 모든 목거지*에 다니노라 피곤(疲困)하여 돌아가려는도다.
아, 너도 먼동이 트기 전으로 수밀도(水蜜桃)*의 네 가슴에 이슬이 맺도록 달려오너라.

[A]
[마돈나] 오려무나. 네 집에서 눈으로 유전(遺傳)하던 진주(眞珠)는 다 두고 몸만 오너라.
빨리 가자. 우리는 밝음이 오면 어딘지도 모르게 숨는 두 별이어라.

[마돈나] 구석지고도 어둔 마음의 거리에서 나는 두려워

떨며 기다리노라.
아, 어느덧 첫닭이 울고 — 못 개가 짖도다. 나의 아씨여. 너도 듣느냐.

[마돈나] 지난밤이 새도록 내 손수 닭아 둔 침실(寢室)로 가자. 침실로!

[B] 낯은 달은 빠지려는데, 내 귀가 듣는 발자국 — 오, 너의 것이냐?

[마돈나] 짧은 심지를 더우잡고, 눈물도 없이 하소연하는 내 맘의 촛불을 봐라.
양(羊)털 같은 바람결에도 질식(窒息)이 되어 얇푸른 연기로 꺼지려는도다.

[마돈나] 오너라 가자. 앞산 그리메*가 도깨비처럼 발도 없이 이곳 가까이 오도다.
아, 행여나 누가 불는지 — 가슴이 뛰누나. 나의 아씨여. 너를 부른다.

[마돈나] 날이 새련다. 빨리 오려무나. 사원(寺院)의 쇠북이 우리를 비웃기 전에
네 손이 내 목을 안아라. 우리도 이 밤과 같이 오랜 나라로 가고 말자.

[C]

[마돈나] 뉘우침과 두려움의 외나무다리 건너 있는 내 침실 열 이도 없으니!
아, 바람이 불도다. 그와 같이 가볍게 오려무나. 나의 아씨여. 네가 오느냐?

[마돈나] 가엾어라. 나는 미치고 말았는가. 없는 소리를 내 귀가 들음은 —
내 몸에 피란 피 — 가슴의 샘이 말라 버린 듯 마음과 목이 타려는도다.

[마돈나] 언젠들 안 갈 수 있으랴. 갈 테면 우리가 가자. 끄으러가지 말고!
너는 내 말을 믿는 [마리아] — 내 침실이 부활(復活)의 동굴(洞窟)임을 네야 알련만…….

[D]

[마돈나] 밤이 주는 꿈. 우리가 엮는 꿈. 사람이 안고 뒹구는 목숨의 꿈이 다르지 않으니.
아, 어린애 가슴처럼 세월(歲月) 모르는 나의 침실로 가자. 아름답고 오랜 거기로.

[마돈나] 별들의 웃음도 호려지려 하고, 어둔 밤물결도 찾아지려는도다.

[E] 아, 안개가 사라지기 전으로 네가 와야지. 나의 아씨여. 너를 부른다.

- 이상화, [나의 침실로]

*목거지: ‘모꼬지’의 방언. 여러 사람이 놀이나 잔치 등에 모이는 일.

*수밀도: 사과 물이 많고 맛이 단 복숭아.

*그리메: 그림자.

(나)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밀둥 잘리어도 새순은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라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라

고통과 설움의 땅 뿔뿔 지나서

뿌리 깊은 별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 고정희, [상한 영혼을 위하여]

27.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원경과 근경을 대비시켜 풍경을 사실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 ② 설의법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청유형의 종결 어미를 활용하여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 ④ 수미상관의 구성을 통해 작품의 구조적 안정감을 추구하고 있다.
- ⑤ 음성 상징어를 통해 대상에 대한 생동하는 느낌을 자아내고 있다.

28. (가)의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먼동’이 뜨기 전의 시간과 ‘어딘지도 모르게 숨는 두 별’이 연결됨으로써, 마돈나와의 만남에 대해 조급해하는 화자의 간절한 심정이 드러나는군.
- ② [B]: ‘첫닭’과 ‘못 개’의 청각적 심상과 ‘내 귀가 듣는 발자국’의 환청을 결합하여, 마돈나와의 만남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군.
- ③ [C]: 말라 버린 듯한 ‘가슴의 샘’과 타려는 듯한 ‘마음과 목’을 결합하여, 이루어지지 못한 만남으로 인해 점차 절망이 심화되고 있는 화자의 마음 상태를 제시하고 있군.
- ④ [D]: ‘세월 모르는’과 ‘아름답고 오랜’을 결합하여, 지향하는 세계가 실현 불가능하다는 화자의 뒤늦은 깨달음과 한탄을 제시하면서 시상을 전환하고 있군.
- ⑤ [E]: 흐려지는 ‘별들의 웃음’과 ‘어둔 밤물결’을 결합하여, 화자의 다급하고 간절한 심정을 제차 환기하고 있군.

29. (나)의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에게 두려움을 유발하는 존재이고, ㉡은 ㉠에게 위안을 주는 존재이다.
- ② ㉠은 화자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존재이고, ㉡은 ㉠에게 연민을 느끼게 하는 존재이다.
- ③ ㉠은 화자가 위로를 전하려는 존재이고, ㉡은 ㉠이 정신적으로 기댈 수 있는 존재이다.
- ④ ㉠은 화자에게 기대감을 갖게 하는 존재이고, ㉡은 ㉠에게 실망감을 갖게 하는 존재이다.
- ⑤ ㉠은 화자의 자부심을 환기하는 존재이고, ㉡은 ㉠에게 의구심을 환기하게 하는 존재이다.

30.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시에서는 서로 대비되는 공간의 특성을 함께 제시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의 특성을 그려 내거나, 화자의 독특한 내면세계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가)에서는 어두운 밤의 현실과 대비되는 ‘침실’을 상징의 공간으로 제시하고 있다. 밀폐된 공간인 ‘침실’은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다양한 공간으로 변주되면서,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인물의 욕망을 암시한다. 이 공간을 통해 화자는 현실과 거리를 두고 마음의 평안과 안식, 삶의 활력을 되찾으려 한다. (나)에서는 ‘하늘 아래’나 ‘별판’이 지닌 ‘뿌리 깊음’을 시적 공간의 특성으로 구체화한다. 이를 통해 화자는 자신이 바라는 세계에 대한 지향을 나타낸다.

- ① (가)에서 ‘침실’을 ‘눈으로 유전하던 진주는 다 두고 몸만’와야 할 곳으로 그려 낸 것에서, ‘침실’에 대한 지향이 세속적인 현실과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화자의 초월적 태도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군.
- ② (가)에서 ‘침실’을 ‘늪우침과 두려움의 외나무다리 건너’에 있는 공간으로 파악한 것에서,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겠다는 화자의 단호한 결단을 떠올릴 수 있군.
- ③ (가)에서 ‘침실’을 ‘부활의 동굴’이라고 비유하는 것에서, 마돈나와 함께 밀폐된 공간을 통해 새로운 존재로 재생하고 싶다는 화자의 간절한 바람을 엿볼 수 있군.
- ④ (나)에서 ‘하늘 아래’와 ‘물 고이’는 곳은 고통 속에서도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서러운 현실에 맞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야 할 존재들을 떠올리게 하는군.
- ⑤ (나)에서 ‘뿌리 깊은 별판’은 화자가 자신을 구원해 줄 존재와의 만남을 위해 스스로 마련해 놓은 이상적인 공간으로서, 고통과 설움을 이겨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환기하고 있군.

[31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옛날 신라 시대 때, 세달사(世達寺) 금의 흥교사(興敎寺)다. 장원이 명주(溟洲)날리군(李郡)에 있었다. 지리지를 살펴보면, 명주에 날리군은 없고 다만 날성군(城郡)이 있는데, 본래 날생군(生郡)으로 지금의 영월(寧越)이다. 또 우수주(牛首州) 영현(領縣)에 날령군(靈郡)이 있는데, 본래는 날 이군(己郡)으로 지금의 강주(剛州)다. 우수주는 지금의 춘주(春州)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한 날리군이 어느 것인지 알 수 없다. 사(本寺)에서는 승려 조신(調信)을 보내 장원을 맡아 관리하게 했다.

조신은 장원에 이르러 태수 김흔(金昕)의 딸을 깊이 연모하게 되었다. 여러 번 낙산사의 관음보살 앞에 나아가 남몰래 인연을 맺게 해달라고 빌었으나 몇 년 뒤 그 여자에게 배필이 생겼다. 조신은 다시 관음 앞에 나아가 관음보살이 자기의 뜻을 이루어 주지 않았다고 원망하며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었다. 그렇게 그리워하다 지쳐 얼마 뒤 선잠이 들었다. 꿈에 갑자기 김 씨의 딸이 기쁜 모습으로 문으로 들어오더니, 활짝 웃으면서 말했다.

“저는 일찍이 스님의 얼굴을 본 뒤로 사모하게 되어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의 명을 어기지 못해 억지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지만, 이제 같은 무덤에 묻힐 벗이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조신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며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사십여 년을 살면서 자식 다섯을 두었다. 그러나 집이라곤 네 벽뿐이요, 콩잎이나 명아쭈국 같은 변변한 끼니도 댈 수 없어 마침내 실의에 찬 나머지 가족들을 이끌고 사망으로 다니면서 입에 풀칠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십 년 동안 초야를 떠돌아다니다 보니 옷은 매추라기가 매달린 것처럼 너털너털해지고 백 번이나 기워 입어 몸도 가리지 못할 정도였다. 강릉 해현령(蟹縣嶺)을 지날 때 열 다섯살된 큰아들이 굶주려 그만 죽고 말았다. 조신은 통곡하며 길가에다 묻고, 남은 네 자식을 데리고 우곡현(羽曲縣) 금의 우현(羽縣) 도착하여 길가에 떠돌로 엮은 집을 짓고 살았다. 부부가 늙고 병들고 굶주려 일어날 수 없게 되자, 열 살 난 딸아이가 돌아다니며 구걸을 했다. 그러다가 마을의 개에 물려 부모 앞에서 아프다고 울며 드리눅자 부모는 탄식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부인은 눈물을 씻더니 갑자기 말했다.

“내가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는 얼굴도 아름답고 꽃다운 나이에 옷차림도 깨끗했습니다. 한 가지 맛있는 음식이라도 당신과 나누어 먹었고, 몇 자 되는 따뜻한 옷감이 있으면 당신과 함께 해 입었습니다. 집을 나와 함께 산 오십 년 동안 정분은 가까워졌고 은혜와 사랑은 깊었으니 두터운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이래로 쇠약해져 병이 날로 더욱 심해지고 굶주림과 추위도 날로 더해 오는데, 결방살이 [A]에 하찮은 음식조차 빌어먹지 못하여 이 집 저 집에서 구걸하며 다니는 부끄러움은 산과 같이 무겁습니다. 아이들이 추위에 떨고 굶주려도 돌봐 줄 수가 없는데, 어느 겨를에 사랑의 싹을 틔워 부부의정을 즐기겠습니까? 젊은 날의 고왔던 얼굴과 아름다운 웃음도 풀잎 위의 이슬이 되었고, 지초와 난초 같은 약속도 회오리바람에 날리는 벼들숨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있어서 근심만 쌓이고, 나는 당신 때문에 근심거리만 많아지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옛날의 기쁨이 바로 근심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당신이나 나나 어째서 이 지경

이 되었는지요. 여러 마리의 새가 함께 굶주리는 것보다는 짝 잃은 난새가 거울을 보면서 짝을 그리워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힘들면 버리고 편안하면 친해지는 것은 인정상 차마 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가고 멈추는 것 역시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헤어지고 만나는 데도 운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 따라 이만 헤어지기로 합시다.”

조신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각기 아이를 둘씩 나누어 데리고 떠나려 하는데 아내가 말했다.

“저는 고향으로 향할 것이니 당신은 남쪽으로 가십시오.”

그리하여 조신은 이별을 하고 길을 가다가 꿈에서 깨어났는데 희미한 등불이 어른거리고 밤이 깊어만 가고 있었다.

아침이 되자 수염과 머리카락이 모두 하얗게 세어 있었다. 조신은 망연자실하여 세상일에 전혀 뜻이 없어졌다. 고달프게 사는 것도 이미 싫어졌고 마치 백 년 동안의 괴로움을 맛본 것 같아 세속을 탐하는 마음도 얼음 녹듯 사라졌다. 그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부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이 참회하는 마음이 끝이 없었다. 돌아오는 길에 해현으로 가서 아이를 묻었던 곳을 파 보았더니 돌미륵이 나왔다. 물로 깨끗이 씻어서 가까운 절에 모시고 서울로 돌아와 장원을 관리하는 직책을 사임하고 개인 재산을 털어 정토사(淨土寺)를 짓고서 수행했다. 그 후에 아무도 조신의 종적을 알지 못했다.

- 작자 미상, [조신(調信)의 꿈]

***장원**: 궁정·귀족·관료나 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대규모의 토지.

***명주**: 지금의 강릉 지방.

***지초**: 지치. 예전부터 민간요법에서 약재로 많이 사용한 풀로, 여기에서는 향기로운 풀을 의미함.

***난새**: 중국 전설에 나오는 상상의 새로, 깃은 붉은빛에 다섯 가지 색채가 섞여 있으며, 소리는 오음(五音)과 같다고 함.

31.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이 떠나지 않으면 그로 인한 불행이 자식들에게 미칠 것임을 들어 이별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 ②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부의 인연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별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하며 훗날 재회할 것을 기약하고 있다.
- ③ 과거와 달라진 현재의 처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지금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별이 필요하다고 상대를 설득하고 있다.
- ④ 상대방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미안한 감정을 드러내며 자식의 죽음과 불행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자책하고 있다.
- ⑤ 인간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 운명을 따르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며 이별을 하는 것이 부부 사이의 도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3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전설(傳說)은 신화와 달리 신분과 능력이 평범하거나, 비범하다 해도 평범한 사람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한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한다. 또한 허구적이라고 여겨지는 사건을 다루고 있다 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증거물이 남아 있어 당시 사람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믿는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이다. 전설은 주로 지명(地名)이나 탑(塔), 불상(佛像) 및 사찰(寺刹)과 같은 건축물 등의 유래와 관련된 것들이 많은데, 그런 점에서 ‘조신’이라는 인물을 다루면서 그의 행적에 대한 신빙성을 부여하는 인명(人名)이나 구체적 지명들을 활용한 「조신의 꿈」을 통해 전설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 ① 조신이 ‘정토사’라는 절을 세운 후 수행을 했다는 내용을 통해 이 이야기가 사찰의 유래와 관련된 전설이라는 점을 알 수 있군.
- ② 절의 장원을 관리하는 승려인 ‘조신’의 행적을 다루고 있다는 점은 능력과 신분이 평범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전설의 요소에 해당하겠군.
- ③ 조신과 관련된 절인 ‘세달사’가 ‘지금의 홍교사’와 같다는 설명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믿음을 주는 요소에 해당하겠군.
- ④ 조신의 행적과 관련해서 ‘명주’, ‘우곡현’과 같은 지명이나 장원의 태수 이름을 ‘김흔’이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이야기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요소에 해당하겠군.
- ⑤ 조신이 창건한 절에 모신 ‘돌미륵’이 꿈에서 죽은 아이를 묻었던 곳에서 발견한 ‘돌미륵’과 같다는 점은 허구적인 사건을 사실로 믿게 하는 증거물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해당하겠군.

3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윗글은 고려 승려 일연이 쓴 ‘삼국유사’에 수록된 글입니다. ‘삼국유사’에는 많은 꿈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꿈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고하는 역할을 하거나, 꿈속 교시자(敎示者)를 통해 꿈의 의미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또한 꿈은 이계(異界) 내지 다른 공간으로의 여행과 돌아옴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 꿈은 현세적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회로(回路)가 되며, 꿈의 내용 또한 현실에서 억압된 욕망이나 잠재된 의식이 표출되거나 혹은 현실에서의 억압을 풀어 버리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꿈은 언제나 깨기 마련이라는 점에서 인생의 덧없음을 나타내기도 하며, 꿈을 꾸는 인물들은 이를 통해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지요.

- ① 조신이 꿈속에서 태수의 딸과 혼인을 한다는 점에서 윗글은 주인공이 현실에서 억압된 욕망을 달성하는 이야기에 해당하겠군.
- ② 조신이 꿈속에서 겪은 사건이 하룻밤의 일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꿈’이 현세적인 시간을 초월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 주는군.
- ③ 조신이 꿈속에서 겪은 사건을 바탕으로 삶을 참회하며 불도에 정진하게 된다는 점에서 ‘꿈’은 인물의 깨달음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하고 있군.
- ④ 조신이 부인의 말을 듣고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점에서 부인은 꿈에 감추어진 의미를 알려 주는 ‘교시

자’에 해당하겠군.

- ⑤ 조신이 꿈속에서 겪은 체험들은 현재 자신의 처지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사건들이라는 점에서 ‘꿈’은 현실과 ‘다른 공간’을 이어 주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군.

[34 ~ 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은유는 수사법의 일종으로, 문학 작품에서만 아니라 일상 언어생활에서의 참신한 표현에도 활용된다. 은유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metaphor’는 ‘넘어서’의 의미인 ‘meta’와 ‘옮기다’의 의미인 ‘phor’의 합성어로, 어떤 말이 본래의 의미를 벗어나서 다른 의미로 옮겨져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은유는 서로 다른 두 영역의 개념들을 유사성의 관점에서 비유하는 인지적 표현 방법이다. 은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개’와 ‘취의’를 의미상의 구성 요소로 가져야 한다. ‘매개’는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하여 채택되는 친숙한 단어이다. ‘취의’는 매개에 담겨서 전달되는 의미를 지칭한다. 예를 들어, 벚꽃잎이 날리는 것을 보고 “눈이 내리네.”라고 말했다면 ‘눈’은 매개이고 ‘벚꽃잎’은 취의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은유를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말의 장식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20세기의 학자들은 은유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은유가 인상적인 문학적 표현을 위하여 활용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대상을 인식하고 경험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개념적 틀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개념적 틀의 역할을 한다는 입장에 따르면 은유는 동일한 실재에 대한 다른 기술(記述)을 ㉡양산하여 현실을 다른 방식으로 경험하게 한다. 그런 점에서 ㉢은유는 장식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인지적 도구이다.

우리 일상의 개념 체계 대부분이 은유적이다. 인간이 개념 체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보면 추상적인 개념은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 유사성이 확장되어 구조화된다. 예를 들어 “논쟁은 전쟁이다.”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자.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논쟁’은 언어 담화이며 구체적인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전쟁’은 무장 분쟁으로, 거기에 수행되는 행위도 다르다. 그러나 ‘논쟁’은 ‘전쟁’의 관점에서 부분적으로 구조화되고 이해된다. 우

[A] 리는 논쟁의 상대방을 적수로 보며 전략을 구상하여 상대방의 입장을 공격하기도 하고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한 개념이 다른 개념의 관점에서 은유적으로 구조화되는 경우를 ‘구조적 은유’라고 한다.

이와 달리 공간적 지향성과 관련 있는 은유적 개념은 ‘지향적 은유’라고 한다. 예를 들어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에 그녀는 억장이 무너졌다.”라는 표현에는 슬픔의 추상적 감정이 아래쪽을 지향하는 단어로 은유되어 있다. 많은 언어에서 기쁨은 위쪽에, 슬픔은 아래쪽에 은유되고, 많음은 위쪽에, 적음은 아래쪽에 은유되는 지향성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

은유는 과학에서도 활용되어 지식을 ㉣확장한다. 과학의 진보를 위해서 새로운 개념은 친숙하지 않더라도 수립되어야 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과학자들은 이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

은 현상을 발견하면 그 현상을 기존의 틀 속에서 이해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과학자들은 적극적으로 은유를 활용한다. 이때 어떤 은유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개념은 전혀 다르게 형성된다. 따라서 은유의 형성은 과학의 진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난 300여 년간 계속되어 온, 빛의 본질을 설명하려는 대립적 입장 역시 은유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빛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기에 과학자들은 기존에 알고 있는 알갱이나 호수에 돌을 던질 때 나타나는 물결의 파동에 빗대어 빛의 본질을 설명하려 한 것이다. 17세기 뉴턴은 빛이 광원으로부터 방출되는 입자들의 흐름이며, 눈 속으로 들어온 입자가 시신경을 자극한다고 생각했다. 이와 같은 입자설은 광전효과 실험을 설명할 수 있다. 금속판에 특정 진동수 이상의 진동수를 가진 빛을 쬐어 주면 금속판 안에 있던 전자들이 튀어나오는 현상을 광전 효과라고 하며, 이때 튀어나오는 전자를 광전자라 한다. 실험의 결과 금속 표면에 쬐어 주는 빛의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라는 특정한 값보다 작으면 아무리 센 빛을 쬐여 주거나 오래 쬐여 주더라도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를 통해 빛이 입자라는 이론이 ㉠지_지되었다. 입자설은 이 현상을 빛의 입자가 전자와 충돌하여 전자가 방출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반면 빛의 회절*이나 간섭과 같은 새로운 성질이 연구되면서 빛의 본질을 파동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도 있다. 푸코는 빛이 입자라면 물속에서 힘을 받아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고, 파동이라면 파장이 짧아져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고 가정했다. 그리고 광속 측정 실험을 통해 물속에서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증명하였다. 또 물 위에 형성된 기름막이나 비눗방울이 만드는 무지개빛 간섭무늬는 다른 경로를 통한 두 개 이상의 빛이 합쳐져 생기는 현상으로, 빛을 파동으로 이해할 때 훨씬 잘 들어맞는다. 파동설에 따르면 두 파동의 마루와 마루, 골과 골이 겹치면 더 크게 진동하지만 마루와 골이 겹치면 진동이 ㉡상_상해_해된다. 이는 입자설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다.

* 회절: 파동의 전파가 장애물 때문에 일부가 차단되었을 때 장애물에 가려진 부분까지도 파동이 전파하는 현상.

3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과학에서도 지식을 확장하기 위해 은유를 활용한다.
- ② 아리스토텔레스는 은유를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말의 장식으로 여겼다.
- ③ 푸코는 물속에서 빛의 속도를 측정하여 빛의 본질을 파동으로 이해하였다.
- ④ 빛의 본질을 설명하려는 과학자들은 입자설과 파동설로 나뉘어 대립해 왔다.
- ⑤ 뉴턴은 광원으로부터 방출된 파장이 눈 속으로 들어오면 시신경을 자극한다고 생각하였다.

35. ㉠을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20세기의 학자들에 의해 발견된 은유의 역할이로군.

- ② 일상생활 속에서 말의 장식만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로군.
- ③ 의미상의 구성 요소인 매개와 취의를 생략하더라도 설득력이 있다는 의미로군.
- ④ 다양한 기술(記述)을 양산하여 현실을 다른 방식으로 경험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이로군.
- ⑤ 문학적 표현을 위해 활용될 뿐만 아니라 경험을 확장하는 데에도 동원된다는 의미로군.

36.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 시간은 돈이다.

(나) 가진 돈이 바닥을 드러냈다.

- ① (가): ‘시간’의 추상성은 ‘돈’의 구체성을 통해 구조화되고 이해된다고 할 수 있군.
- ② (가): 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적이라는 측면에서 ‘돈’의 귀중함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군.
- ③ (나): ‘바닥’은 ‘돈’과의 유사성을 통해 의미가 확장된다고 할 수 있군.
- ④ (나): ‘돈’이 적어지는 상황을 아래쪽에 비유한 지향적 은유라고 할 수 있군.
- ⑤ (나): 부정적 상황이 아래쪽에 은유되는 공간적 지향성이 나타나고 있군.

3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톰슨은 음극선 실험을 통해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하나의 입자라는 돌턴의 원자설이 틀렸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원자가 더 쪼개질 수 있으며 음전하를 띠는 입자인 전자를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원자 내부에서 양전하와 음전하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여 양전하가 고르게 분포된 푸딩 속에 음전하를 띤 전자 건포도들이 박혀 있는 원자 모형을 제안했다. 이 것이 건포도 푸딩 모형이다.

- ① ‘건포도 푸딩 모형’에서 ‘건포도’와 ‘푸딩’은 매개에 해당하는군.
- ② 톰슨은 ‘음전하’와 ‘건포도’가, ‘양전하’와 ‘푸딩’이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겠군.
- ③ 원자를 ‘건포도’와 ‘푸딩’의 분리된 개념으로 제시해 원자가 쪼개질 수 있다는 취의를 전달하려고 하는군.
- ④ ‘건포도’나 ‘푸딩’의 은유는 실험을 통해 발견한 사실을 건포도나 푸딩의 새로운 속성에 빗댄 표현이로군.
- ⑤ 톰슨은 ‘건포도 푸딩 모형’을 통해 원자의 구조라는 과학적 개념을 친숙한 기존의 사물을 통해 쉽게 이해시키려 한 것이로군.

38. ㉠~㉥의 사전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남에게 예속되거나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섬.
- ② ㉡: 많이 만들어 냄.
- ③ ㉢: 확실히 보증하거나 가지고 있음.
- ④ ㉣: 어떤 상태나 상황이 그대로 보존되거나 변함없이 계속되어 지탱됨.
- ⑤ ㉥: 문 따위를 닫아걸거나 막아 버림.

[39 ~ 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세기 독일의 역사가 랑케의 ㉠실증주의 역사학은 ‘자료 그 자체가 말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원래의 역사적 자료에 충실하면서 어떠한 편견이나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끝까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역사를 서술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사료의 정확성에 집착하여 객관적인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역사학의 폭과 깊이를 축소시키는 부정적 측면을 드러내었으며 인문·사회 과학의 세계에서 역사학이 자료 제공자의 위치로 전락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이후 1970년대 구조 기능주의적 방법론을 주창한 프랑스의 아날학파가 서양 역사학계를 주도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정치보다는 사회, 개인보다는 집단을 역사 서술의 기본 골격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면서, 집단적 행동 양식과 가치관 같은 문화적 대상까지도 계량적으로 연구하고 인구 통계학이나 사회학의 계량적 방법을 통해서 삶에 대한 서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하게 된 ‘미시사(microstoria)’는 1970년대 중반 이탈리아 역사가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주창된 개념으로, 역사학을 ‘실제의 삶에 관한 학문’으로 규정하고, 계량화된 숫자 안에서 희미하게 드러나는 민중이 아니라 실제 살아 숨쉬는 생생한 인간으로서의 민중을 기록하고자 하였다. 미시사는 이탈리아어로 작다는 뜻의 ‘micro’와 역사라는 뜻의 ‘storia’가 합성된 단어로, 우리말로 직역하면 ‘작은 역사’가 되는데 이는 역사적 대상을 작은 규모와 척도에서 관찰한다는 의미로, 예컨대 한 지역의 사건, 또는 어떤 한 인물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세세히 추적하는 것을 말한다.

미시사의 특징은 연구 주제, 사료의 종류, 서술 방식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미시사는 기존에 무시되어 온 연구 주제들, 연구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간주되어 온 주제들을 중점적인 연구 대상으로 여겨 ‘평범한 농민의 세계관’, ‘산업 혁명의 거대 조류 속 소시민의 행동’ 등과 같이 작고 평범한 인물들의 삶의 모습들을 주제로 다루었다. 사료의 종류와 관련하여 미시사는 이전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이른바 ‘내러티브적’ 자료들에도 주목하였는데, 여기에는 재판 기록, 일기, 연대기, 편지, 탄원서, 설화집 등이 있다. ‘자료 그 자체’에 집중했던 랑케식 실증주의가 자신들에 대한 자료를 스스로 생산하는 엘리트 계급의 역사를 기술하는 데는 비교적 유효한 측면이 있지만 자료를 거의 남기지 못한 하층 계급의 역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 주지 못했기 때문에, 미시사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내러티브적 자료들에 주목하여 그 안에 담긴 민중들의 이야기를 살피으로써 이들의 가치관과 문화적 태도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서술 방식에 있어서 미시사는 역사가의 주관적 서술을 드러내는 방식을 활용하였는데,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 한 개인의 생각과 행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과정에서 역사가가 갖게

되는 의문점이나 생각도 역사 서술의 일부가 되도록 한 것이다. 미시사의 대표적인 저작물인 긴츠부르크의 『치즈와 구더기』는 한 인물을 이단으로 판정하는 재판 기록에 의거하여 서술되었는데, 저자는 인물이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할 때 생기는 의문이나 가설을 스스로 없이 드러내고 있다.

미시사는 그 접근 방식이 충분히 실증적이지 못하다는 점, 예외적인 주제만을 선호함으로써 사회 전체를 제대로 조망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한계로 지적받기도 한다. 하지만 역사에 대한 기존의 입증 방식과 인식 체계가 엘리트 계급의 문화 권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미시사는 기존의 역사학에서 잊힌 사람들, 즉 ‘보통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역사의 무대로 올려놓은 의미 있는 접근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39. 윗글에서 다루어진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미시사의 출현 배경
- ② 미시사의 연구 주제
- ③ 미시사의 서술 방식
- ④ 미시사의 한계와 의의
- ⑤ 미시사의 사료 수집 방법

40. 윗글을 읽고, <보기>를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며칠 후에 심문이 재개되었다. 시장이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재판관들은 시장의 귀환을 기다리지 않았다. “마음속의 생각을 말해 달라.”라는 재판관들의 심문에 메노키오는 “저의 영혼은 숭고한 것을 추구하였으며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원하였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올바르게 나아가지 못하고 그토록 많은 허식으로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답하였다. 도대체, 방앗간 주인 메노키오는 정치·경제·사회적인 모순들이 함께 뒤섞여 있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 그는 자신의 존재를 은밀하게 제약하고 있는 그 거대한 힘의 논리에 대해 어떤 상상을 하고 있었을까?

- 카를로 긴츠부르크, 『치즈와 구더기』

- ① 인물이 법정에서 서게 된 행적을 집중적으로 세세히 추적하고 있군.
- ② 사건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인물의 말에 대한 역사가의 의문이 드러나고 있군.
- ③ 재판 기록이라는 내러티브적 자료를 바탕으로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살피고 있군.
- ④ 거시적으로 사회 전체를 조망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에서 일어난 특정 사건에 집중하고 있군.
- ⑤ 집단적 행동 양식 속의 개인이 아니라 방앗간 주인이라는 평범한 인물의 실제 삶의 모습을 다루고 있군.

<보 기1>

「어부사시사」는 속세를 떠나 자연을 즐기는 어부의 삶을 주제로 하고 있는 작품으로, 작가인 윤 선도는 이 작품이 이현보와 같은 선배 문인들이 즐기던 「어부가」 계열의 작품들을 계승한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윤선도는 기존의 「어부가」 계열 작품들을 자신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네 계절을 각 각 10수로 구성한 총 40수의 방대한 작품을 짓고, 이 작품의 뒤에 「어부사여음」을 덧붙여 작품에서 미처 담지 못한 마음도 드러내었다.

<보 기2>

(가) 이 등에 시름업스니 어부(漁父)의 생애(生涯)이로다
 일엽편주(一葉扁舟)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인세(人世)를 다
 니젓거니 날 가는 줄을 안가

- 이현보, 「어부단가(漁父短歌)」 제1주

(나) 강산(江山)이 도타 흔들 내 분(分)으로 누엇느냐
 님군 은혜(恩惠)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프리 갑고자 햏야도 햏을 일이 업세라

- 윤선도, 「어부사여음(漁父詞餘音)」

- ① (가)와 윗글에는 모두 어부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나타나고 있군.
- ② (가)와 윗글의 어부는 생업으로 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 있군.
- ③ (가)와 윗글에 등장하는 배는 화려하지 않고 소박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군.
- ④ (나)를 통해 윗글의 작가가 사대부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았음을 환기하고 있군.
- ⑤ (나)는 윗글의 작가가 임금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음을 다른 이에게 과시하고 있군.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십시오.